

‘보리’, 머물 자리 없기에 얻을 것도 없어

종일 말하면서도 일찍이 말한 적이 있던가?
종일 들으나 업제 들은 적이 있던가?

하루 종일 얘기한다 해도, 근본자리에서는 한 마디도 한 적이 없다. 하루 종일 들어도, 근본자리에서는 한 마디도 들은 적이 없다. 밝은 거울에 사물이 비쳤다가 지나가듯이, 여여부듯 한 그 자리에 만사가 흘러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석가세존께서 49년 설법하셨어도, 한 글자도 말씀하신 적이 없는 것이다.

마음을 알고 쓰면, 인생 백년 삼만육천 일 아침마다 다름이 자리의 반복일 뿐 달리 다른 일이 없다. 하루하루가 무상히 흘러가지만, 그 흘러가는 자리는 일찍이 조금도 움직인 적이 없는 것이다. 늘 움직이는 가운데서도, 실제로는 그 자리를 벗어난 적이 없는 것이다. 석존께서 평생을 설법하셨어도, 실상으로는 한 글자도 말씀하신 바가 없다고 하는 것과 같다. 지혜를 밝혀 이 자리를 잘 알고 쓰면, 삶은 풍요로워지고 매사가 순조로워진다. 한편으로는 활발하게 매사를 처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한없이 자유롭고 여유 있게 지내는 것이다.

배후가 물었다.
“만약 그렇다면, 깨달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황벽스님이 대답했다.
“깨달음에는 일정한 처소가 없다.”

황벽스님은 배후를 범저량이나 선문답의 형식으로 대하지 않고, 특별히 묻는데 따라서 자세하게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런 질문에는 바로 입을 막아서 즉시 의심에 걸리게 하는 방편을 많이 쓴다. 깨달음은 과거, 현재, 미래에도 국한되지 않고, 동서 남북 상하에도 구애되지 않는다. 시간과 공간도 본래 자리에서 연기법에 의해 일어나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부처라 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며, 중생이라 해서 깨달음을 잃는 것도 아니다. 깨달음은 몸으로 얻지 못하며, 마음으로도 구할 수 없는 것이니, 일체 중생이 그대로 깨달음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온 세상이 한마음으로 딱 차있기 때문에, 이를 벗어나 달리 깨달음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을 수가 없다. 따라서 부처라 해도 별다른 깨달음을 얻은 것이 아니고, 중생이라고 해도 깨달음을 벗어나 있지 않다. 다만 부처는 이 사실을 깨달은 것이고, 중생은 아직 못 깨닫고 있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실상으로는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한 처도 차이가 없이 동일한 것이다. 일체 중생이 있는 그대로 깨달음의 모습을 지니고 살고 있다.

수불 스님의 완릉록 선행 (15)



범어사 주지

시공간은 본래 자리에서
연기법에 의해 일어나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부처라 해도 별다른
깨달음을 얻은 것이 아니고
중생이라 해도 깨달음을
벗어나 있지 않다

다만 부처는 이 사실을
깨달은 것이고,
중생은 아직 못 깨닫고
있는 것일 뿐이다

보리는 얻을 것이 없다
그대가 지금 다만 얻을
것이 없다는 마음만 내라
결단코 한 법도 얻을 수
없다면 즉시 보리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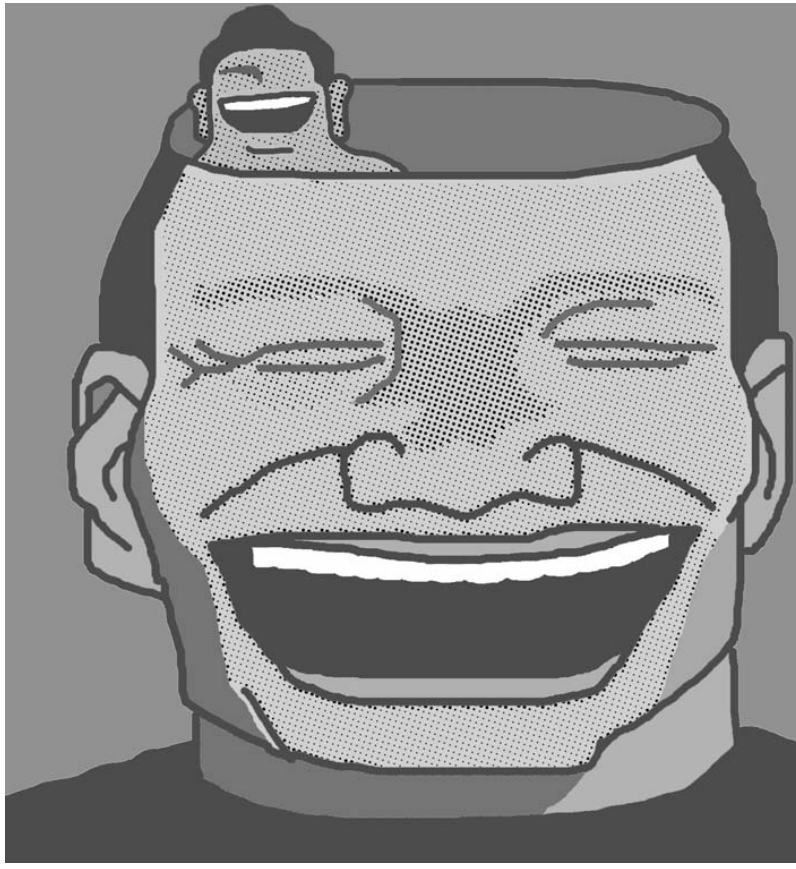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그러면 어떻게 보리심을 발합니까?”

배후는 궁금한 것이 많다. 중생이 이미 그렇게 완벽하게 깨달음의 당처에서 살고 있는 데도 보리심을 내지 못하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보리심을 잘 일으킬 수 있는지는 것이다. 이미 완벽하게 달리 보리심을 더하여 일으킬 필요가 있는지는 질문일 수도 있다.

“보리는 얻을 것이 없다. 그대가 지금 다만 얻을 것이 없다는 마음만 내라. 결정코 한 법도 얻을 수 없다면, 즉시 보리심이다.”

보리는 깨달음이다.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본래 구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깨달으려고 하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머리가 머리를 찾는 것이라고 하셨다. 그렇지만 중생은 업의 그림자에 가려져 자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선지식과의 인연에 힘입어 전도몽상으로부터 깨어나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보리는 머물 자리가 없기에, 얻을 그 무엇도 없다.

우리들의 마음은 본래 머무는 바가 없다. 그렇기에 깨달음이란 얻고 잃고 하는 대상이 아닌 것이다. 머무는 바가 없이 자연스레 흘러가는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고착하여 집착하면, 실상에 어긋나기에 고(苦)가 발생하는 것이다. 나뭇잎이 강물을 따라 흘러가듯이 머무는 바가 없는 흐름을 타고 가면,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는 일이 없는 무위(無爲)의 삶을 영위하게 된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연등불의 처소에 있을 때 조금도 얻을 법이 없었기에, 연등불께서 나에게 수기(授記)하셨다.’고 하신 것이다.

일심(一心)의 불이법은 불립문자 교외별전 이므로 이심전심으로 전해진다. 사실은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전할 것도 없는 것이다. 그 이유인즉 육조스님은 “우리들의 보리자성이 본래 청정하고, 본래 생멸하지 않으며, 본래 구족하고, 본래 동요가 없으며, 그래서 능히 만법을 낸다.”고 하신 것이다. 본래 완벽하니 그 위에 조금도 더할 것이 없는 것이다. 머리에 머리를 더할 것이 없고, 부리에 부리를 더할 것이 없다.

일체 중생이 본래 보리임을 분명히 알아서, 마땅히 다시 보리를 얻으려 하지 말아야 한다.

일체 중생이 본래 보리를 구족하고 있다는 것을 믿게 되면, 애써 밖으로 향해 달려 나가는 치구심(馳求心)이 쉬어지게 된다. 무엇인가를 찾아 밖으로 구하는 것이 곧 외도(外道)다. 찾고자 하는 이 마음이 곧 본래 구족한 본심임을 굳게 믿어서, 함이 없는 ‘무위’의 길로 접어들어야 비로소 선(禪)을 공부할 분(分)이 있게 되는 것이다.

배후는 알음알이가 많아서 지적 분별작용을 쉬지 못하니 자꾸 묻게 되는데, 이런 배후에게 꼭 필요한 것이 ‘될까 얻을 경지가 있어서 깨달아 얻어야 한다.’는 착각을 스스로 알아채는 것이다. 그 착각을 깨주기 위해서 황벽스님이 그렇게 간곡하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다.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㉑



이 유약은 독이기도 감로이기도 하다

乳藥

〈열반경〉

만병통치약은 있는가?

어떤 나라에 의사가 있었다. 어떤 환자가 오든 단 하나의 약만을 처방하는 의사! 그 약은 유약이다. 유유로 만든 약일 수도 있고, 우유 그 자체가 약으로 쓰였을 수도 있었다. 그 의사에게는 유약이 만병통치약이다.

그러한 의사가 존재하고, 활동할 수 있으려면 그에 걸맞은 어리석은 통치자가 있어야 한다. 왕 역시 어리석었다. 그래서 늘 그의사를 받았다.

그러나 세상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진실로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 그 시절 역시 그랬다. 진실로 의학을 익히고 닦은 의사가 없지는 않았다. 스스로의 공부에 어느 정도 되었다 싶은 순간, 그는 하산(下山)을 결심한다.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 의사를 찾아간다. 하지만 대뜸 의술을 뱉는 대신, 의술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한다. 그 문하에 제자로서 들어간 것이다. 역시 그랬다. 엉터리 의사가 정도(正道)의 스승일 수가 있겠는가. 48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시봉(侍奉)을 잘 한다면, 그 이후에 의술을 가르쳐 주겠노라 말한다. “좋습니다.” 라고 하면서, 진짜는 가짜 밑에서 몸을 낮춘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의 일이다. 왕이 의사를 불렀다. 다행인지, 그는 제자를 데리고 갔다. 비서가 필요했기 때문일 것이다. 진짜 의사는 이 때를 놓치지 않았다. 왕에게 진정된 의술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었다. 비로소 왕은 가짜 의사를 추방할 수 있었다.

이제 진짜 의사가 어의(御醫)가 되었다. 그의 부탁 : “은 나라에 유약의 복용을 금하게 하소서.” 왕은 의사 말을 따랐다. 그런데 어느날 왕이 병들고 만다. 왕을 진찰하고 난 뒤, 의사가 내리는 처방은 놀랍게도 “유약을 복용해야 한다”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무슨 말인가? 의사는 왕을 속이는 것인가, 놀리는 것인가?

항변하는 왕에게, 의사는 대답한다. “이 유약은 독이기도 하고 감로이기도 합니다.”

흔들리는 해답

종교, 라는 말은 으뜸가는 가르침이라는 뜻이다. 종교적 진리가 절대적인 믿음을 요구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내가 믿고 있는 종교의 가르침이 가장 높은 진리라고 믿는 데서부터 종교신앙은

출발한다. 신앙의 깊이는 이 믿음의 확실성이나 절대성의 높이에 정비례한다.

종교적 믿음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성격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 하지만 그렇다 보면, 어느덧 독선적인 도그마에 빠지게 된다. 우리 중에는 그러한 독선적 성격이 유일신을 믿는 종교에서나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과연 그럴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나 불교 밖의 지식인들이 갖고 있는 불교에 대한 이미지의 중에는, “불교는 독선적이지 않다. 그래서 좋다”는 것이 있다. 물론 교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사상적으로는 열려있는 종교임에 틀림없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도 그런가? 나와는 다른 타자(他者)를 수용하는 개방성이 아직은 불충분하다고 느낄 때가 많다. 멀리 다른 종교나 가르침과 비교할 것도 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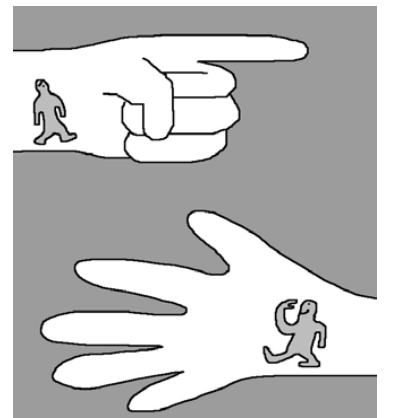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다. 같은 불교 안에서, 자기가 믿고 있는 신념, 자기가 좋아하는 경전, 자기가 선호(選好)하는 수행만이 참된 것이라 여기면서 ‘만병통치약’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없는 것일까? 만약 없지 않다면, 언제나 유약만을 제시한 저 가짜 의사와 다름이 없을 것이다.

〈열반경〉은 이 비유를 통해서, 유아(有我)와 무아(無我)가 배타적이거나 선택적인 것이 아님을 말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나로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상대의 병(病)을 고려하면서 다양한 약(藥) 처방, 수행법을 처방해야 한다는 다원적 내지 개방성에 대한 강조를 읽고 싶다.

그러한 다양성 내지 개방성은 얼마나 나약하게 보이는가.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는 비난을 들을 수도 있다. 그러나 확신보다는 흔들리는 속에서, 보다 진실한 해답의 추구가 가능할 수도 있는 것은 아닐까.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현대불교 창간 19주년을 축하합니다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공인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 (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육 기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과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액	14주 과정 목요일 반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 의 02)3147-2020 www.kile.or.kr

지 부 교 육 원

제 기 동 02-966-0020	창 원 055-243-6333	호 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 산 051-441-0111	울 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 구 053-566-1116
강원서부 033-252-3682	경 남 055-932-5877		

교육부공인법인 / 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진로 · 적성 · 상담 안내

C.A.C 분석서

- ➔ 16개 항목 분석 자료 추출
 - 학습유형별 정보 제공
 - 선천적으로 적합한 계열과 학과 제공
 - 기타 성격, 인품, 평생주기별 운 예측
 - 대학 진학 (입학사정관, 수시, 정시)
 - 나와 인연되는 대학명
 - 대학 진학하는 해! 세운 분석
- ➔ 상 담 료 : 2십만원
 - 상담 후 미 진학시 상담료 환불
- ➔ 학습진로상담사 학회

◇동방대문화교육원 수업 [목] (오후 2시~5시)
◇국제문화대학원 수업 [토] (오전 10시~오후 2시)
◇저서 : 규명(1, 2, 3권 : 한숨미디어)
실전성명학 : 상원문화사

➔ 개인 지도 : 입 문 자 10개월 과정
명리전문반 3개월 과정

➔ 수업일 : 매 주 화 · 금요일(오후 5시 ~ 7시)

〈본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 873-2, 1층
〈지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601-98 2층
상담사 검제 정 비오 (010-5524-7053)
〈지부〉 서울 성북구 동선동 5가 36 2층 (다솜)
상담사 박 흥연 (010-7925-4749)

오시는길 : 1호선 수원역 하차 → 맞은편 720-2버스 탑동우방사거리 → 새하늘교회방면 → 도보 30m
규명철학연구소 1층 010-5418-5972